

## 거주형태에 따른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박연숙<sup>1</sup>, 김종림<sup>2\*</sup>, 이선미<sup>3</sup>  
<sup>1</sup>공주대학교, <sup>2</sup>공주여자고등학교, <sup>3</sup>덕암초등학교

### High School Girl's Level of Stress, Somatization, Anger and Adjustment to School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ing

Yeon-suk Park<sup>1</sup>, Jong-lim Kim<sup>2\*</sup>, Seon-mi Lee<sup>3</sup>  
*<sup>1</sup>Kong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Gongju Girls High School,*  
*<sup>3</sup>Deokam Elementary Scho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stress, somatization, anger, adjustment to school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ing.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design. Data was collected from 552 students in a girls high school in gongju using structured instruments. Not to be influenced by the tension of new school year or the stress by taking tests, the researcher did the survey after students finishing midterm test of the first semester for two days from July 14 to 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stress, anger, adjustment to school between the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and the students not living in a dormitory. However there was remarkable difference in somatization.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matization and stress( $r=.194$ ,  $p=.011$ ), between anger and stress( $r=.463$ ,  $p<.001$ ), in contras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djustment to school and stress( $r=-.174$ ,  $p<.001$ ) of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stress( $r=-.187$ ,  $p<.001$ ), somatization( $r=-.252$ ,  $p<.001$ ), anger( $r=-.230$ ,  $p<.001$ ) with adjustment to school of students not living in a dormitory. In the sub-factors of somatization, students who live in a dormitory have many kinds of somatizations of digestive or respiratory organs.

A Health promotion program should be designed for girls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based on the level of somatization of digestive or respiratory organs.

---

**Key Words : Stress, Somatization, Anger, Adjustment to School**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건강은 학업성취는 물론 한 국가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생산 가능 인구가 될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는 더욱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나 성, 음주, 흡연, 우울, 자살 등의 형태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법률 제8678호, '07.12.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8 - 148호(2008.9.11)로 보건교과가 고시되었으나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사이버 공간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1].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수많은 고등학교들의 특징적인 변화는 기숙사 건립을 앞 다투어 하고 있으며,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등하교와 입시 뒷바라지, 자취나 하숙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 생활지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이해와,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인 생활과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요구도가 맞아서 기숙사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8-2009년 사이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로 150개의 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증진과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숙사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적응에 관한 문제점 들이다. 가정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건강문제 발생 시 즉시 부모님들이 개입하고 해결하는 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건강문제가 누적되거나 잠복하는 경우가 많고, 납득할 만한 신체적인 이상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감염, 결핵 등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숙사 생활자가 비기숙사 생활자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며[3], 기숙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4], 인문계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본인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나타난[5] 반면, 기숙사 생활여부에 따라 스트레스의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6]. 기숙사 거주 여부에 따라 식생활 및 건강행동 실천에 차이를 보였고[7], 기숙사의 물리적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학업, 건강, 개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면, 기숙사의 사회 심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환경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기숙사 입사 전후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공동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간 관리와 자제력 향상, 학습량의 증가로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식사 불만'과 함께 가정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9].

학생들이 호소하는 건강문제 중에서 몸이 아픈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쉽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고 불편한 학생들이 있다. 이처럼 의학적 신체적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신체화'라고 한다[10]. 청소년에게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체화 증상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할 때 청소년들이 습관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우려가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11]. 특히 한국 청소년은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신체 증상 호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신체화의 원인과 기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10][13] 대부분이 성인이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연구에서도[14] 신체화 증상을 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 두 변인만 살펴보아 학생들의 새로운 거주형태인 기숙사 생활로 인한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기의 분노 현상은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주로 물리적, 생리적 자극에 의해서 분노가 발생하는데 비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원인이 주로 사회적 요인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기의 분노는 낮은 자존감, 불안정한 가정 및 학교 환경, 상실감, 좌절감, 일반적으로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고, 분노의 표현을 결코 학습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킨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청소년들이 분노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높은 분노 수준과 부적응적인 분노 표현 양식이 청소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 학교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기 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노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고등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15]. 이와 같이 분노 표현 양식이 청소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관련성이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변인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거주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학교적응, 학업성적, 건강행동 등에 관한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거주형태에 따라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건강문제 즉 신체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에 관한 관련성도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거주하지 않는 학생간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 간의 차이점과 종속변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신체화로 나타나는 건강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교육과정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형태에 따른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신체화로 나타나는 건강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을 파악한다.
- 2) 거주형태에 따른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3) 기숙사 거주 여부, 거주 기간에 따른 신체화 하부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스트레스

최근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과 반

응으로서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스트레스로 구분된다[16]. 또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자극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정서체계, 행동체계, 생리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특유반응을 야기시키는 원인적 행동의 모든 것을 말한다[17].

## 2) 신체화

신체화는 의학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신체 불편감으로 다양한 근육통, 두통, 과민성 대장 증상, 비궐양성 소화불량, 만성 피로, 현기증, 숨 가쁨, 건강 염려 등이 있다. 대개 한 가지 증상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갖고 있거나, 한 가지 증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의 대부분은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특정한 기질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무능해지는 등 적응 곤란 등을 신체화로 표현한다[10].

## 3) 분노

분노는 자기 요구의 실현을 부정 및 저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결과 생기는 정서이다. 신체적 불만, 좌절, 자존감 상실로 인하여, 분노 표적에 관한 사고 혹은 신념과 혈압 상승 및 심장 박동수의 증가 등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고, 운동적,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미미한 짜증으로부터 극단적인 분노까지의 비교적 당한 강도가 있는 불쾌한 내적 경험 상태를 말한다[18].

## 4)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 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학교 상황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의 정도”라 할 수 있으며, 김용래에 의해 개발된 학교적응 척도[19]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고등학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고등학교 여고생으로, 혹은 남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신체화 측정에 있어서 정신건강 즉 우울, 감정표현불능 등에 관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신적인 측면보다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두어 연구 하였으므로 제한점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그들의 개인별 특성과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G시에 소재하는 여자고등학교로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학교장에게 받고, 편의 표출한 학급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여학생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171, 자기 집에 거주하는 학생 338명, 자취하는 학생 43명, 친척집 및 하숙을 하는 학생 60명과 미 응답자가 22명이었다.

여기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본 연구의 특성상 친척집과 하숙집에 거주하는 학생을 제외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171명과 자기 집에 거주하는 학생 338명, 자취

하는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총 552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Cohen (1988)의 분산 분석을 위한 공식에 따라 G-Power 3.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은 .05, 효과 크기(effect size)는 .2, 검정력(power  $1-\beta$ )은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504명이므로 대상자 수는 충족되었다.

### 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스트레스 척도], [신체화 척도], [분노 수준 척도], [학교 적응 척도]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로는 박순영[20]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지 문항은 개발자의 도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환경에 맞도록 문항을 추가하였고, 내용이 비슷한 관련 문항을 줄여 총 40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받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1점(전혀 없음)부터 5점(매우 심각)까지 5단계 평정 척도이며, 최하위 점수는 40이고 최고 점수는 20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의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alpha=.93$ 으로 박순영의 Cronbach'  $\alpha =.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신체화 척도

신체화 척도는 아동 신체증상 목록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K-WPSI(Wahler Physical symptom inventory)[21]와 신현균이 번안해 제작한 한국판 아동 신체화 척도[13]와 김서윤, 하은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아동 신체화 척도[22]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상황에 맞도록 문항을 변경하였고, 내용이 비슷한 관련 문항을 줄여 총 39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은 정도에 따라 '거

의 없다' 0점부터 '거의 매일' 5점까지 6단계 평정 척도로 증상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빈도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체화 척도의 Cronbach's  $\alpha = .90$ 으로, 신현균의 연구[13] Cronbach's  $\alpha=.87$ , 김서윤, 하은혜의 연구[22] Cronbach's  $\alpha = .92$ 와 유사하였다.

하위 요인들의 분류는 신현균[13]의 연구에서 요인 1이 전반적인 신체증상, 요인 2가 통증, 요인 3이 허약 증상, 요인 4가 소화장애 등으로 나눈 것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아동 신체화 척도의 타당화 연구[22]의 경우, 요인 1이 통증 및 허약 증상, 요인 2가 전환 및 유사 신경학적 증상, 요인 3이 소화기 증상, 요인 4가 시각적 증상 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신체화 요소인 호흡기와 근골격계를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신체화 문항은 최하위점수 학교 적응 척도 문항은 최하위점수는 0점이고 최고 점수는 195점으로 대상자에게 실시해서 반응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체화의 하위요인들은 통증 및 허약요인, 유사 신경학적 요인, 소화기 요인, 호흡기 요인, 근골격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 통증 및 허약요인 : 신경학적 요인, 소화기, 호흡기, 근골격계 요인을 제외한 전반적인 통증과 전신 관련한 신체화를 말하며, 통증 및 허약요인 점수는 0점에서 70점까지이다.

나) 유사 신경학적 요인 : 신경학적 질병 증상과 유사한 신체화를 말하며, 유사 신경학적 요인 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다.

다) 소화기 요인 : 소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음식 섭취 불편감에서 복통, 소화불량성 두통, 설사, 변비에 이르기까지의 소화기 신체화를 말하며, 소화기 요인 점수는 0점에서 35점까지이다.

라) 호흡기 요인 : 호흡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콧물, 기침, 발열, 목의 통증까지 호흡기 신체화를

말하며, 호흡기 요인 점수는 0점에서 25점까지이다.

마) 근골격계 요인 : 근육, 인대, 뼈와 관련하여 통증, 떨림, 긴장, 움직이기 어려움 등 근골격계 신체화를 말하며, 근골격계 요인은 0점에서 35점까지이다.

### 3) 분노척도

분노척도는 문은주, 김성희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분노척도'[23]를 사용하였다. 분노척도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3>와 같다. 각 문항은 분노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단계 평정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26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분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개발자의 Cronbach's  $\alpha = .90$ 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분노 척도 문항은 최하위점수는 26점이고 최고 점수는 104점으로 대상자에게 실시해서 반응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분노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 정서적 요인 : 분노란 긴장되고, 격분되고 화가 나는 주관적인 느낌으로써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므로 '정서적 요인'이라고 명명하며, 정서적 요인 점수는 4점부터 3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행동적 요인 : 분노가 일어날 때 이에 따른 자율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 개인에게 특유한 행동 양식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행동적 요인'으로 명명하며, 4점부터 40점으로 되어 있다.

다) 인지적 요인 : 분노가 사건자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건에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해석이나 의미부여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므로 '인지적 요인'이라고 명명하며,

인지적 요인의 점수는 4점부터 32점으로 되어 있다.

### 4) 학교 적응 척도

학교 적응 척도[19]의 각 문항은 학교 적응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단계 평정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 적응 척도 검사의 Cronbach's  $\alpha$ 는 개발자 Kim의 Cronbach's  $\alpha = .94$ 와 유사한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학교 적응 척도 문항은 최하위점수는 41점이고 최고 점수는 164점으로 대상자에게 실시해서 반응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학교 적응의 하위요인들은 환경 적응, 교사 적응, 수업 적응, 친구 적응, 생활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가) 환경 적응 : '대상자가 학교 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 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가고 있는 정도'로서 학교 환경점수는 10점에서 40점으로 되어 있다.

나) 교사 적응 :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교사에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인간관계의 정도'로서 학교 교사 적응의 점수는 10점에서 40점으로 되어 있다.

다) 수업 적응 : '학교의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수업시간에 유발하는 학습자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도'로서 학교 수업적응 점수는 8점에서 32점으로 되어 있다.

라) 친구 적응 : '학교의 친구들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

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유발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나가는 정도'로서 학교 친구 적응 점수는 7점에서 28점으로 되어 있다.

마) 생활 적응 :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서 규칙과 질서·각종 행사·시설물의 활용·준비물 지참·교내 홍보와 게시물 확인 등이 주요 사항이다. 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한 교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 가는 정도'로서, 학교생활 적응 점수는 6점에서 24점으로 되어 있다.

#### 4. 자료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에게 사전에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린 후 이에 동의한 학생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본 조사 전에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학생 2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고, 학년별로 골고루 표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8개 반 중 6개 반씩을 임의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년 초의 긴장감과 시험기간의 스트레스가 설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학기 기말시험을 모두 마치고, 2011년 7월 14일에서 15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34명이 응답하였으나, 연구 특성상 자취, 하숙, 친척집에 거주하는 학생 60명과 응답이 미비하거나 미응답 한 학생 22명을 제외하고, 기숙사 거주 학생 171명, 자기 집에 거주하는 학생 338명, 자취하는 학생 43명, 총 5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스트레스, 신체화, 학교적응, 분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거주형태, 기숙사 거주기간 등의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사후검증 하였다.

### III. 결과

#### 1. 거주형태에 따른 대상자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점수의 범위와 정도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105.06±26.06점, 신체화 평균점수는 46.55±25.21점, 분노 평균점수는 58.64±12.46점, 학교적응 평균점수는 91.99±16.53점으로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주거형태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구해졌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인 Levene 통계량에서 유의확률이 스트레스(p=.28), 신체화(p=.23), 분노(p=.39), 학교적응(p=.87)로 p값이 .005보다 커서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하다고 볼 수 있어, 사후분석 결과 중에서 등분산이 가정함의 검정 값으로 검정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스트

레스요인 집단 간 유의확률(p)이 .035, 신체화요인 집단 간 유의확률(p)이 .007로 집단 간에 평균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분노( $p=.24$ )와 학교적응( $p=.66$ )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F=3.33, p=0.35$ ) 사후검정(Post Hoc)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Scheffe로 비교 검정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거주형태에 따른 신체화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96, p=0.007$ ). 이를 사후검정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Scheffe로 비교 검정한 결과 기숙사 거주 학생과 자기 집에 거주 학생 간( $p=.048$ ), 기숙사 거주 학생과 자취 학생 간( $p=.025$ ) 차이를 보였고, 자기 집에 거주하는 학생과 자취하는 학생 간( $p=.358$ )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화를 많이 경험하고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형태에 따른 분노, 학교적응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정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정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그룹과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그룹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은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분노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분노도 상승함을 알 수 있었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 하나, 기숙사

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체화 증상 및 분노 경험은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기숙사에 거주하는 않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신체화 증상과 분노 경험이 강하게 나타나고,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분노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경험은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신체화 증상을 적게 느끼며, 분노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함을 알 수 있었다.

## 3. 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신체화 하부 요인 분석

신체화 하부 요인들을 대상자의 거주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체화의 하부요인으로는 통증 허약 요인, 유사 신경학적 요인, 소화기 요인, 호흡기 요인, 근골격계 요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신체화 하부 요인별 대상자의 거주 특성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구해졌고, 분산분석 결과 통증허약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 근골격계 요인에서는 거주 특성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 소화기 요인( $F=34.086, p<.001$ ), 호흡기 요인( $F=11.570, p<.001$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소화기 요인, 호흡기 요인의 사후검정(Post Hoc)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 검정한 결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자기 집에 거주하는 학생 간( $p<.001$ ),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자취하는 학생 간( $p<.001$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소화기, 호흡기 신체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화 하부 요인별 기숙사 거주 기간 특성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소화기 요인(F=15.932, p<.001), 호흡기 요인(F=6.621,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소화기 요인, 호흡기 요인의 사후검정(Post Hoc)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소화기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는 기숙사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과 6개월 미만인 집단(p<.001),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p<.001), 13개월에서 24개월 미만(p=.032), 25개월 이상(p<.005)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호흡기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는 6개월 미만(p=.023), 25개월 이상(p<.004)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기 집과 자취를 하는 학생들보다 소화기, 호흡기 신체화를 더 많이 경험하며, 기숙사 거주 기간별 소화기 신체화 증상은 모든 거주 기간 동안 자주 경험하며,

호흡기 신체화 증상은 처음 6개월 미만과 25개월 이상의 집단이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 5명, 호흡기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 5명을 심층 면담하여 보니 소화기 주 호소 증상으로는 ‘배가 아프다’, ‘늘 더부룩하다’, ‘소화가 덜 된 느낌이다’, ‘설사를 자주 한다’, ‘밤늦은 시간에는 속이 쓰리다’, ‘변비가 있다’, ‘화장실에 가도 대변이 잘 안 나온다’, ‘소화가 안 된다 싶으면 머리가 아프다’, ‘늘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등이었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다’, ‘코가 자주 막힌다.’, ‘기침이 난다’, ‘자주 감기에 걸린다.’ 등으로 나타났고, ‘같은 방 친구가 감기에 걸리면 자신도 바로 감기를 앓는다.’ 등이었다.

<표 1> 거주형태에 따른 대상자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정도 (N=552)

항목	구분	빈도	범위	평균±표준편차	F(p)	Scheffe
스트레스	total	552		105.06±26.06	3.33(.035)	
	Dormitory	171	40-200	109.12±28.45		
	Home	338		103.62±24.90		
	Live alone	43		100.19±23.43		
신체화	total	552		46.55±25.21	4.96(<.007)	b<a, c<a
	Dormitory a	171	0-195	51.01±24.17		
	Home b	338		45.21±25.91		
	Live alone c	43		39.40±21.03		
분노	total	552		58.63±12.46	1.42(.24)	
	Dormitory	171	26-104	57.87±12.47		
	Home	338		59.30±12.55		
	Live alone	43		56.51±11.51		
학교적응	total	552		91.99±16.53	.42(.66)	
	Dormitory	171	41-164	92.95±16.36		
	Home	338		91.57±16.77		
	Live alone	43		91.44±15.40		

<표 2>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정도의 상관관계

기숙사 그룹 (171)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
	r	r	r	r
스트레스	1			
신체화	.194*	1		
분노	.463**	.161**	1	
학교적응	-.174*	-.007	-.113	1

  

비기숙사 그룹 (381)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
	r	r	r	r
스트레스	1			
신체화	.330**	1		
분노	.439**	.281**	1	
학교적응	-.187**	-.251**	-.230**	1

\* : p<.05, \*\* : p<.01

<표 3> 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신체화 하부요인 분석

하부요인	구분	평균±표준편차	F(p) Scheffe	기숙사 거주기간	평균±표준편차	F(p) Scheffe
통증 허약요인	합계	15.92±9.40	.761(.468)	합계	15.92±9.40	.329(.898)
	기숙사	15.74±9.59		0	16.01±9.33	
	자기집	16.21±9.59		1-6개월	15.65±8.24	
	자취	14.40±6.86		7-12개월	16.95±10.13	
				13-24개월	14.44±10.86	
		25-31개월	15.58±10.42			
신경학적 요인	합계	4.71±4.11	.989(.373)	합계	4.71±4.11	.674(.610)
	기숙사	4.99±4.21		0	4.58±4.06	
	자기집	4.65±4.06		1-6개월	5.02±3.50	
	자취	4.05±4.07		7-12개월	5.60±4.24	
				13-24개월	4.48±5.37	
		25-31개월	4.67±4.43			
소화기요인	합계	12.31±6.49	34.086(<.001) a>b,c	합계	12.32±6.49	15.932(<.001) a<b,c,d,e
	기숙사 a	15.43±5.31		0 a	10.92±6.49	
	자기집 b	11.15±6.52		1-6개월 b	15.67±4.72	
	자취 c	9.07±6.00		7-12개월 c	15.78±6.10	
				13-24개월 d	14.79±5.11	
		25-31개월 e	15.11±5.72			
호흡기요인	합계	5.87±4.31	11.570(<.001) a>b,c	합계	5.87±4.31	6.621(<.001) a<b,e
	기숙사 a	7.16±3.82		0 a	5.29±4.40	
	자기집 b	5.33±4.45		1-6개월 b	7.20±3.35	
	자취 c	5.00±4.03		7-12개월 c	6.48±3.69	
				13-24개월 d	6.72±3.74	
		25-31개월 e	8.19±4.66			
근골격계 요인	합계	7.73±5.95	.513(.599)	합계	7.73±5.95	.290(.885)
	기숙사	7.70±6.05		0	7.75±5.92	
	자기집	7.86±6.08		1-6개월	7.35±6.19	
	자취	6.89±4.39		7-12개월	7.70±5.68	
				13-24개월	7.38±6.21	
		25-31개월	8.61±6.21			

#### IV. 고찰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고생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네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기숙사 학생들이 많이 호소하는 신체화의 하부요인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171명, 자기 집에 거주하는 학생 338명, 자취하는 학생 43명, 총 552명으로 스트레스 점수는 total 105.06, 기숙사 109.12, 자기 집 103.62, 자취 100.19로 나타나, 기숙사 생활 고등학생의 갈등관리 양식과 스트레스 유형 간의 연구[6]에서 나타난 기숙사 생활 학생 109.25, 일반학생 103.8과 같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김혁준[6]의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3.33, p=0.35$ ). 이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고, 현재 사회 교육적인 상황이 훨씬 더 입시위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부담감 증가와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여 나타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와 학교 적응 간의 역 상관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 하게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성과 학년 수준에 관련 없이 학교 적응력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5].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화 증상과 분노가 일어도 학교 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 간 역 상관성이 높아 학교적응을 잘 하도록 하려면 스트레스와 분노와 같은 감정들에 대하

여 조절능력을 길러주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 상담이 요구되며, 신체화 증상들을 스스로 관리할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화는 동양문화의 특성상 외국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능숙하지 못한 반면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의 현장에서 이러한 측면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이 '혼자 사는' 경우보다 신체화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24]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신체화 점수는 total 46.55, 기숙사 51.01, 자기 집 45.21, 자취 39.40으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F=4.96, p=0.007$ )가 나타났고, 신체화 하부요인별 분석에서도 소화기 요인( $F=34.086, p<.001$ ), 호흡기 요인( $F=11.570,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소화기와 호흡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6개월 미만과 25개월 이상 거주자 즉,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진급하는 학생들이 소화기와 호흡기 신체화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1학년은 신입생으로서 학교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3학년 진급으로 인한 수능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보여 진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소화기 증상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아침 식사 후 운동량이 자기 집이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보다 부족하고, 둘째, 기숙사에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셋째, 오후 6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밤 12시경이 되면 배가 너무 고파서 자주 간식을 주문하여 먹다보니 소화가 안 되고 종종 아침에 배가 아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숙사 편의 시설 확충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당한 간식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식단에 변비에 좋은 과일 야채 등을 보충하고, 아침식사의 경우 고른 영양과 함께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식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주 수분섭취 및 운동을 하도록 하면 소화기 신체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호흡기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 이유로는 첫째, 기숙사 내부 시설이 중앙 난방시스템으로 상당히 건조한 환경이며, 둘째, 6명이 한방에 거주하며 호흡기 질환의 감염이 용이하고, 셋째,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한 기숙사 환경이 알려지성 비염 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며, 평소 수분섭취를 적게 하여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되어 호흡기 증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호흡기 신체화 증상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침구류 등을 자주 세탁하고, 청소 시 먼지 제거를 철저히 하며, 습도 조절을 위해 각 실에 가습기를 비치하거나 상시 적당량의 빨래를 널어두고, 환기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자주 수분섭취를 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의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과 손을 비누로 자주 씻는 등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의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 수준을 측정하고, 요인별 상관성 분석과 신체화 하부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은 자기 집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보다 신체화를 많이 경험하고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집과 자취집에 거주하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분노를 강하게 느낌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분노도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하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체화 증상 및 분노 경험은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않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신체화 증상과 분노가 강하게 나타나고,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분노도 강하게 느낌을 알 수 있었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경험은 학교적응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신체화 하부요인인 소화기 관련 신체화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거주 기간 동안에 소화기 신체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호흡기 신체화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 기간별 차이는 기숙사에 입사해서 처음 6개월 미만과, 25개월 이상 집단에서 호흡기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문계,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등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라 기숙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신체화 하위요인 분류를 명확히 하고, 일반 고등학생들에 적합한 신체화 척도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고생들의 신체화 정도를 바탕으로 소화기 및 호흡기 신체화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1. 김대유(2010), 웃기는 학교 웃지 않는 아이들, 시간여행, p.5.
2. 한국교육개발원, <http://edolicy.kedi.re.kr/EpnicDb/Epnic/EdpStatPrt.php>
3. 김미예, 오화선(1996), 기숙사생활자와 비기숙사생활자의 정신건강 비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학술지, Vol.37(2);273-282.
4. 유광호(1997), 집단생활이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숙사 생활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pp.34-39.
5. 김종진(2001),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0.
6. 김혁준(2010), 기숙생활 고등학생의 갈등관리 양식과 스트레스 유형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2-31.
7. 신현주(2008), 광주시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른 식행동, 스트레스 및 영양소 섭취 실태조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8-50.
8. 진애순(2009), 기숙사와 자가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특목고의 기숙사 환경개선 요구도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5-59.
9. 안혜경(2011),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전남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9-71.
10. 신현균(1998), 신체화 집단의 신체 감각에 대한 해석, 추론 및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8.
11. 강승호, 정은주(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Vol.13(4);405-424.
12. 이미숙, 최영, 유지숙(2000),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39(2);323-333.
13. 신현균(2003), 한국판 아동 신체화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초등 고학년생의 신체증상 경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Vol.22(4);829-846.
14. 함자영(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11.
15. 전인자(2002), 고등학생의 분노 수준과 분노 표현양식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
16. 최혜경(2005), 유아의 인성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4-98.
17. 이은천(2000),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실업계 고교생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15.
18.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 표현 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6.
19.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Vol.17;33-34.
20. 박순영(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3-85.
21. 이방락, 김대진, 신민섭, 최보문(2002), 한국판 신체증상목록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Vol.22(41);146-158.
22. 김서윤, 하은혜(2009), 한국판 아동 신체화척도의 타당화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Vol.9(1);25-37.
23. 문은주, 김성희(2008), 고등학생용 분노척도 개발, 한국교육, Vol.35(1);151-166.
24. 이한주, 서미아(2010),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Vol.23(1);79-87.

접수일자 2012년 8월 20일

심사일자 2012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9월 11일